



**특집** \_ 청년 해외 진출과 지역경제 돕는 세계한상대회 동포 거상 1천여 명 경주서 '한상 네트워크 구축'

**화제** \_ '한류'로 호응 커진 동포사회 추석맞이 타향에서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 재 케 나 한인 한가위 잔치



## 고려 말 호적 관련 문서

# 당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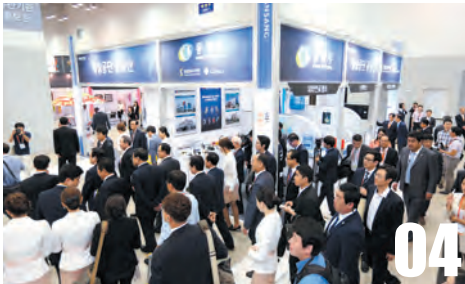
고려 공양왕 때인 1390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봉향인 영흥에서 작성된 고려시대의 호적 관련 문서

**고**려시대에 작성돼 현재까지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호적 관련 문서로 '고려 말 호적 관련 문서'가 있다. 국보 131호인 이 문서는 조선 개국 2년 전인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화령(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성계의 노비 및 이성계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40호의 호적이 포함돼 있다.

해서체로 쓴 이 문서는 모두 8폭의 호적 관련 자료가 연결돼 세로 55.7cm, 가로 386cm인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문서는 영조 7년(1731)에 왕명으로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져 영흥의 준원전에 대대로 보관돼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졌다. 이 문서는 고려 말 호적 체계와 호적 작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호적 관련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고려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호적법이 있어서 양반의 경우 3년마다 호적 2본을 작성해, 하나는 관서에 두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게 돼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사회적인 격변으로 인해 호적법이 무너져, 양인이 강제로 천인이 되는 등 신분제도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로 인해 각종 소송이 일어났다. 이에 공양왕 2년(1390) 도평의사사에서는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호적법을 다시 시행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했다.

전체 8폭으로 구성돼 있는 이 문서는 이성계의 노비를 기록한 제1폭, 호적 작성 원칙을 담고 있는 제2폭, 노비와 양인에 대해 적은 제3~8폭이 있다. 이성계의 노비가 적혀 있는 제1폭에는 이성계의 관직명 등이 기록돼 있어 당시 이성계의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흥미롭다. **창**



### 표지 이야기

동포들은 9월 27일 추석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타향에서나마 명절 분위기를 들었다. 이들은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류 콘서트, 한식 맛보기, 한복 체험 등을 진행해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렸다.

- 02 한국의 얼**      고려 말 호적 관련 문서  
당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 04 특집**            청년 해외 진출과 지역경제 돕는 세계한상대회  
동포 거상 1천여 명 경주서 '한상 네트워크 구축'
- 06 동포 소식**        제일 학도의용군 4명 65년 만에 보국포장 외
- 09 동포 캘린더**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20권 전질 일본어판 발간 외
- 10 기획**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인사회  
70년대 건설 역군들의 열정이 바탕
- 12 화제**            '한류'로 호응 커진 동포사회 추석맞이  
타향에서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 14 글로벌 코리아**    우즈베키스탄의 첫 고려인 선출직 하원의원 박 빅토르  
필리핀서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한상 이원주 씨  
시드니 한인 밀집지 스트라스필드 시장에 선출된 옥상두 씨
- 16 지구촌 통신원**    세계 각국에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 4년 새 2배로 확대  
한류 여파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
- 17 동포정책 Q&A**    재외국민, 2년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면  
해외금융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한·중·일 정상회의' 등 동북아 외교 주도
- 19 동포의 창**        실버대학 사람들  
김윤선 \_ 재외동포의 창 미국 통신원
- 20 동포문학**        족보  
천광일 \_ 중국 \_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가작
- 22 OKF 뉴스**        재외동포 사진전 대상에 '121 코커스 만세'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장사꾼 따라 전국에 퍼진 밀양 대표 음식  
흑염소 불고기과 돼지국밥
- 26 재단 공지**

# 청년 해외 진출과 지역경제 돕는 세계한상대회 동포 거상 1천여 명 경주서 ‘한상 네트워크 구축’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5차 세계한상(韓僑)대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등이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한민족 경제 자산으로 결집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 세계 동포 거상 1천여 명과 국내 기업인 2천여 명 등 총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한상 네트워크

한상대회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자는 취지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키워드인 ‘창조경제’와 그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동포의 저력을 발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청년 해외 진출을

돕는 장으로 ‘한상 & 청년, Go Together!’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대회 기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여기서는 청년들이 100초 스피치와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게 되며,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한상은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운영위원회, 리딩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등 회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기업 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서밋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리딩 한상 네트워킹을 비롯한 교류 행사도 곁들여진다.

맨손으로 해외에 진출해 주류 사회에 우뚝 선 한상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과 해외 취업 관련 외부 강사의 특강도 마련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경제공동체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 시점에서 국적이 관계없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간 교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상이 모국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개척자이자 조력자로서 성공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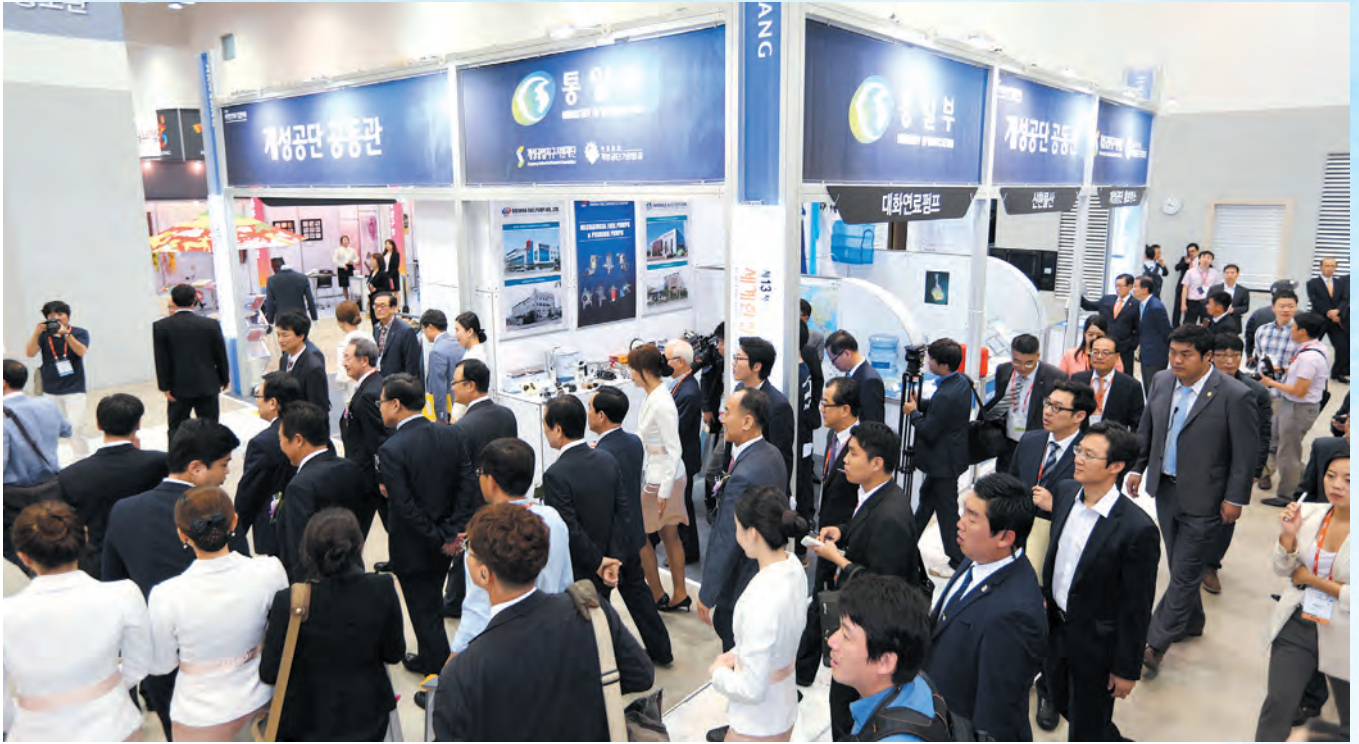
기업 전시회에서는 한상대회에 참가한 동포 기업인과 경북도 및 경주시 지역 내 기업 등이 부스를 차려 사전에 선정한 우수 제품을



세계한상대회에서는 국내 경제인 2천여 명과 전 세계에서 모국을 찾는 한상 1천여 명이 참석해 한상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세계한상대회는 차세대 한상의 육성을 위해 영비즈니스리더 모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왔다. 올해 대회에서는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기업인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중심으로 상품을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한상 네트워크는 무역·상업·제조업·IT산업 등 전 분야의 업종을 포함하는 열린 네트워크로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며 “한상대회는 특정 분야의 회원을 상대로 하는 총회 성격의 행사가 아닌 비즈니스를 매개로 하는 포괄적인 한상들의 컨벤션”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은 국내 기업 가운데 사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포 기업인과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을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국내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해외 한상을 우선적으로 초청했다.

### 문화의 도시 경주서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특별히 경상북도·경주시와 공동 주관으로 역사·문화 도시 경주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지방자치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자체와 대회를 공동으로 열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대회 취지에 맞춰 지역에 소재한 IT·관광·유통 등 수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해외 한상과의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상담이 중점적으로 열린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상들은 바이어이면서 동시에 컨설팅 역할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둘째 날인 14일에 열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의 주제는 다양한 마케팅의 변화를 소개하는 ‘글로벌 마케팅’, 유통망 전성 시대인 ‘아시아 마켓’,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전자상거래를 논하는 ‘B2C-커머스’, 해외 인증에서 출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밖에도 리딩 한상 간 네트워킹, 영 비즈니스 리더 등 청년 한상과 경북·경주 지역의 청년 사업가가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역량을 키워온 영비즈니스리더 회원이 500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회는 어느 때보다 젊은 한상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한상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별 해외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한상을 통한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등을 중점으로 한 대회를 꾸밀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대회장을 맡은 송창근 KMK그룹 회장은 “차세대 발굴과 실질 비즈니스 창출이 중요하다”며 “청년 취업 불황을 극복하고 우수한 인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상이 징검다리로서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 재일 학도의용군 4명 65년 만에 보국포장

제65주년 재일 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식이 9월 23일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행사에서 재일 학도의용군으로 6·25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이도 씨와 고(故) 이동국·김진수·이기홍 씨 등 4명에게 참전 65년 만에 보국포장을 수여했다.

6·25 전쟁이 터진 1950년 당시 일본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재일동포들은 미군 극동사령부로 달려가 참전을 자원했다. 이이도 씨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자발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50년 8월 23일부터 1954년 6월 1일까지 복무했다.

일본에서 건너온 642명의 재일 학도의용군은 유엔군에 편입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중공군 개입 후에는 '3·1 독립 보병대



9월 23일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에서 열린 재일 학도의용군 동지회 6·25 참전 제65주년 기념식

대'를 창설해 압록강 전투, 두만강 전투, 원산 철수작전 등에 참여했다. 참전자 642명 중 52명이 전사했고 83명이 실종됐다.

보훈처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에 바쳤을 뿐 아니라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6·25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것은 가장 고귀한 애국정신의 귀감”이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아직 보국포장을 받지 못한 267명의 신

원을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67년 1월 재일 학도의용군 317명에게 조국 수호의 공적을 치하하며 방위포장을 수여한 데 이어 1997년 6월 재일 학도의용군 54명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했다.

## 호주 동포 변호사, 한인 최초로 '호주 법률상' 수상

호주의 20대 동포 변호사가 한인 최초로 15년 역사의 '호주 법률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 간 한인 1.5세 새뮤얼 강(한국명 강지석·27) 변호사. 그는 최종 후보에 오른 7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올해의 젊은 법률가'로 뽑혀 9월 17일 호주 시드니의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호주 법률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그가 속한 로펌인 '길버트 앤 토빈'에 따르면 한국계 변호사가 '호주 법률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은 호주 법률 전문지인 '로이어즈 위클리'(Lawyers Weekly)가 주최하며, 매년 호주 전역의 법률 회사와 법률가를 대상



호주 한인 1.5세인 새뮤얼 강 변호사가 한인 최초로 15년 역사의 '호주 법률상'을 수상했다.

으로 20여 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가린다.

강 변호사는 호주 플린더스대 법과대를 졸업한 뒤 현재 호주국립대(ANU)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시드니대 법대에서 회사법 강의를 맡아 강단에도 서고 있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업무나 여행차 1년에 한두 번가량 한국에 방문한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소개한 자신의 전문 분야는 사모투자, 인수합병(M&A), 자본시장(ECM) 거래 등이다. 그는 “호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야에서도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11회 홈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

중국 내 조선족 어린이들이 우리말 솜씨를 겨루는 '제11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가 9월 19일부터 이틀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열렸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흑룡강조선어방송국·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부·흑룡강성교육학원민족교연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글짓기·이야기·노래·피아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치러졌다.

글짓기와 이야기 경연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10시부터 흑룡강조선어방송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글짓기 경연은 주어진 주제에 맞춰 1천500자 내외로 즉석에서 글을 쓰는 방식이다. 우리말로 된 산문·수필·동화 등을 5분 내로 발표하는 이야기 경연에서는 전문 배우 못지않은 참가자들



'제11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 글짓기 부문 참가자가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다.

의 표현력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에는 예년보다 500명가량 늘어난 1천2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치열한 경쟁을 거친 60여 명이 19일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시상식은 20일 조선족 제1중학교에서 열렸다.

조선족 최대 규모의 어린이 경연대회로 꼽히는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2년 시작했다. 중견 제약기업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표 영양제인 '홈타민'의 이름을 딴 이 행사를 2002년부터 단독 후원했으며, 2009년부터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뉴욕 맨해튼한국학교 가을 학기 개학식

개교 34주년을 맞는 미국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부설 맨해튼한국학교(교장 심운섭)에서 9월 12일 2015년 가을 학기 개학식이 거행됐다. 1983년 9월에 문을 연 맨해튼한국학교는 뉴욕 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국인의 얼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동화 구연대회, 학부모 주최 바자, 전통문화 체험, 기념 문집 '넓은 길 열린 글'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온 맨해튼한국학교는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한국 문화와 예술, 케이팝(K-Pop), 동포 이민사 등 동포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화된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학교는 또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 초·중·고급반, 한자, 국악, 케



2015년 맨해튼한국학교 가을 학기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좌). 맨해튼한국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우).

이팝, 한국 문화 등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예술제, 아시아 문화 축제 등 대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을 학기 개학식에는 교사 30여 명과 학부모,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유골 115위 한 멧힌 일본 떠나 고국 땅에 안장

“대한해협을 넘어서 그토록 그리워하고 고대하던 조국 산천으로 돌아옵니다.”

9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下關)항에서 열린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115위(位)를 환송하는 자리에서 삼촌 김일중(1925년 출생) 씨의 유골을 모신 김경수(65) 씨는 끝내 참던 눈물을 터뜨렸다. 11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시작된 유골 봉환에 유족으로는 유일하게 전체 일정에 참가한 김 씨는 고향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시모노세키 항에서 회한을 느끼는 듯 한숨을 내뿔었다.

유골 귀향길을 이끈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이하 귀향추진위)는 희생자들의 자취를 더듬고 넋을 기리기



9월 17일 시모노세키의 사찰 고묘지(光明寺)에서 열린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모회에서 현지 재일동포들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제사상에 잔을 올리고 있다.

위해 그들이 '조선'에서 홋카이도까지 끌려갔던 길을 그대로 되짚으며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귀향추진위가 홋카이도에서 도쿄(東京)까지 흩어져 있는 유골을 수습하며 열흘간 이동한 총 거리는 약 4천160km(직선거리 기준)다.

115위의 유골을 모두 수습한 귀향추진위는 시모노세키의 사찰 고묘지(光明寺)에 도착해 일본에서 열린 마지막 추모회에 참석했다. '아리랑'이 울려 퍼진 고묘지에서 열린 추모회에는 유족 신도, 재일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골 115위는 18일 고국 부산항에 도착해 19일 서울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 20일 경기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됐다.

## 동포 뉴욕 주의원, 날치기범 검거 도와 화제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州)의원이 대낮에 남의 지갑을 훔치려던 날치기범을 다른 시민과 함께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20일 '뉴욕포스트'와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지역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론 김(36·민주당) 뉴욕 주 하원의원은 사흘 전인 17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싱의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젊은 남자가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대니얼 피시(25)로 밝혀진 이 남성은 근처 거리에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여성(29)의 지갑을 빼앗으려다 한 시민의 제지로 실패하고 도망치던 중이었다. 급하게 뛰어가는 피시와 그를 쫓아가는 시민, 유모차를 끌고 그 뒤를 따라가는 여성과 아이의 할머니 등을 차례로 본 김 의원은 피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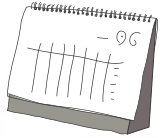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이 도망치던 날치기범을 시민과 함께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고 도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함께 뒤를 쫓기 시작한 김 의원은 피시가 근처 상가 건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피해자로부터 사연을 듣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피시는 그사이 옷을 갈아입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를 알아본 시민이 "저 사람이다"라고 소리쳤다. 김 의원은 전화도 끊지 않은 채로 쫓아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시민과 함께 피시를 붙잡았고, 2분여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넘겼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내 지역구, 그것도 사무실 바로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며 "특히 생후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하는 아내 생각이 나서 범인을 잡는 데 꼭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





##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20권 전질 일본어판 발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하소설의 하나인 박경리(1926~2008)의 '토지' 전 20권을 일본어판으로 일본에서 출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인공은 도쿄에서 한국 관련 서적 전문 출판사 '쿠온' 과 북카페 '책거리'를 운영하는 김승복 씨다. 김 사장은 출판사의 추정 비용 약 1억 엔(약 10억 원)이 필요한 '토지' 일본어판을 내년까지 1~2권을 내고, 7년 안에 전체 20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 홍콩서 한국 10월 문화제 개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은 10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콩 전역에서 '한국 10월 문화제(페스티벌 코리아)'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인 문화제는 2011년 10여 개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으며 올해 프로그램 수가 공연과 전시 등 30여 개로 늘었다. 개막 공연작품으로 세계 비보이 대회 챔피언 출신 '익스프레션' 크루의 뮤지컬 '마리오네트'가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국방문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K-팝 페스티벌 커버댄스' 홍콩 본선이 처음으로 개최된다.



## 독일 수도원 박물관 내 한국관 재개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성 베네딕도회 샤프트 오틀리엔 수도원 선교 박물관의 한국관이 바이에른 주 문화재청과 유럽연합(EU) 지원금을 받아 재개관한다. 한국관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김영재(Beckers-Kim Young-ja · 76 · 레겐스부르크대 박사) 씨는 10월 18일로 예정된 한국관 재개관을 걱정했다. 그는 수장고 관리 여건이 나빠 소장품들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가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국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멕시코문화원 "한국 영화 보러 오세요"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멕시코 국립영화관과 10월 8일부터 한국 영화 주간을 개최한다. 한국 문화원은 이 행사를 앞두고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도 멕시코시티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시네폴리스 상영관에서 한국영화제를 열어 '도둑들'을 포함해 '내가 살인범이다', '결혼전야', '내 아내의 모든 것' 등을 일반 관객에 선보였다. 9월 23일에는 현지 언론과 영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영화 '도둑들' 시사회도 열었다.



## LA서 재미동포 예비 국악인 경연대회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회장 박창규 · 이병임)는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반스달 극장에서 제3회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를 연다. 미주예술원 다루(대표 서훈정)가 주관하는 이 대회 입상자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를 10월 25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동부민요 전국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심사는 박수관 명창(사진), 김지형(국악지휘) 등이 맡는다.



## 제4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서울서 개최

10월 21~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정계를 누비는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열린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거주국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해온 인사 40여 명이 참가한다. 일본 민주당 하쿠 신쿤(白眞勳) 의원, 미국 뉴욕 주 로널드 김 민주당 하원의원, 우즈베키스탄 빅토르 박 국회의원, 중국 박광종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이 한국을 찾아온다.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인사회

# 70년대 건설 역군들의 열정이 바탕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제군주국으로 아랍권에서 알제리 다음으로 큰 나라다. 1962년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수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건설 수주 시장이다.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은 1973년 9월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도로 건설 국제입찰에 성공하면서 시작했다.

중동 진출 10년 만인 1983년에 우리 건설업계는 동남아, 아프리카를 포함해 해외 건설 분야의 연간 수주액이 100억 달러, 수주누계는 6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특히 많이 진출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약 50억 달러(약 5조 원)를 수주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건설 경기가 한때 퇴조

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화학·발전·담수 설비 수주가 급증하며 다시 건설 붐이 일어났다. 201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103개 현장에서 70개의 한국 건설 기업이 시공을 담당했다. 2012년에는 한국의 건설 수주 지역 중에서 중동이 전체 수주액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 수주 금액 누계는 1천741건, 1천309억 달러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근로자들이 닦아 놓은 좋은 이미지가 밑바탕이 되어 한국인 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현지인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지난 1월 특집을 통해 사우디 젊은이 사이에서 '꽃보다 남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한국 TV드라마와 아이돌 가수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내려 받아 즐기는 것은 물론 일하는 한국어를 배워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대화하기도 할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가 날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아랍뉴스는 전했다.

###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사우디의 왕립 여대 '프린세스 노라 빈트 압둘 라프만 대학' (PNU)에 재학 중 숙명여대가 진행하는 '학생리더십 프로그램' (GEP) 참가차 8월 17일 한국 땅을 밟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대생 단야 아텔 알 압둘 카텔(21) 씨는 PNU 재학생 6만여 명 중 한국어 동아리에 등록된 학생은 3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른 외국어 동아리인 인도어·일본어 동아리의 회원이 각각 3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한류 열풍'을 느끼게 한다.

건설업을 바탕으로 진출한 동포들은 이후 현지 업체에 취업하거나 서비스업 등에 진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현재 건설사·지상사 주재원, 자영업자, 교수, 연구원, 종교인 등 5천145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기술 요원으로 일하는 동포도 있다.

한인회는 1990년까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이후에는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수도인 리야드, 서부 지역의 제다, 동부 지역의 담맘 등 세 곳에 한인회가 있다.

1970년대 말 우리 근로자의 수가 많아지고, 가족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한국학교도 설립하게 됐다. 제다한국국제학교가 1976년에 설립되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79년에 리야드한국학교와 담맘한국학교가 분교 형태로 설립됐다. 중등 붐이 절정에 달했던 1984년도에는 학생수가 254명을 기록했으나, 중등 붐이 사그라들고 동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담맘학교가 2001년 9월에 폐교됐다.

리야드한국학교와 제다한국국제학교는 아랍어, 영어, 태권도, 골프, 피아노, 바이올린, 한자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하계 방학과 동절기 방학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현지 실정을 감안해 급식월에 있는 라마단 휴업과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 휴업이 1주일씩 있다.

올 3월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외동포 15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동포 사회 대표는 물론 지난해 1월부터 사우디 왕실 양궁 코치로 활동 중인 '20세기 최고의 궁사' 김수녕 대한양궁협회 이사, 사우디 파견 간호사 출신인 배경란 키파드 메디컬센터 감사팀장, 이성열 프린스술탄대 교수, 박준엽 아마다대 교수, 박우형 킹사우드대 교수, 차민석 킹압둘라 과학기술대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 직종 인사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970년대 우리 건설 역군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는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동포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산업화 시대 선배들의 노력이 '한강의 기적'의 동력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창**



5



6



7

1.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5년 3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공항에 도착하자 여성 동포들이 전통 의상 아바야를 입고 나와 환영하고 있다.
2. 사우디아라비아 담맘공항에 도착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동포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3. 2012년 2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 현지 동포들이 나와 응원하고 있다.
4. 박근혜 대통령이 3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 대표들과 간담하고 있다.
5. 두산중공업이 2006년 12월에 수주해 3년 만에 완공한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버의 담수 플랜트 시설
6. 제다한국국제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졸업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7. 2007년 11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14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세계나 한인회는 9월 27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4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 ‘한류’로 호응 커진 동포사회 추석맞이 타향에서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세계 각국의 동포들은 9월 27일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타향에서나마 명절 분위기를 돋웠다. 이들은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류 콘서트, 한식 맛보기, 한복 체험 등을 진행해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한인회는 24일 요하네스버그 미들랜드 초등학교에서 ‘2015 한가위 잔치 마당’을 열었다. 한인회는 이날 행사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단체 운동,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친목을 다

졌다.

프랑스한인회는 26일 파리의 아클리마타시옹 정원 내 서울공원에서 ‘제13회 한가위 대추제-강강술래’를 개최했다. 한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인도 참가해 제기차기, 윷놀이, 닭싸움 등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 시범, 김치·김밥 시식 등도 이어졌다. 동포들은 장기 자랑, 한복 경연 대회 등에 참여하며 모처럼 화합을 다졌다.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는 26일 수도 빈의 한인문화회관에서 '한가위 맞이 한국 가곡의 밤'을 마련해 보름달 아래 향수를 달랬다. 탄자니아한인회는 27일 수도 다르에스살람의 한 호텔 야외 행사장에서 동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가위 대축제'를 열었다. 민속놀이, 장기 자랑 대회, 한복 체험 등을 통해 현지에 한국의 전통을 소개했다.

재케냐 한인회는 27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4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기자랑 대회, 민속놀이, 평화통일 퀴즈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자랑 대회에는 태권무용단, 한인 어린이 합창단, 현악 4중주, 가야금 솔로 등 9개 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고 푸짐한 상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어진 경품 추첨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마련한 가전제품과 카타르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서 제공한 케냐-한국 왕복 항공권 등이 마련돼 이날 참석한 많은 한인이 푸짐한 선물을 한 아름 안고 타향에서 지내는 한가위를 즐겼다.

**애국지사 기린 뉴욕의 특별한 한가위**

뉴욕 일원에서 민족의 정기를 이어가려는 뜻있는 인사들이 한가위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함께했다.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92년째 잠들어 있는 애국지사 황기환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려고 무덤을 찾아 현화한 것이다.

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 미국 동부 지역 장철우(76) 회장은 정이경(60) 부회장과 함께 27일 뉴욕 퀸스 매스페스에 있는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를 찾아 황 지사의 무덤에 노란 국화꽃 화분 2개를 바쳤다.

황 지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주 파리위원부의 서기장을 맡아 김규식과 함께 그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파리와 뉴욕 등에서 외교전을 펼치다가 1923년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없어 교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황 지사의 무덤은 2008년 장 회장(당시 뉴욕한인교회 목사)의 노력으로 발견됐다. 장 회장은 이후 부활절과 추석 등 1년에 두 번은 꼬박꼬박 황 지사의 무덤을 찾는다.

미국 뉴저지한인회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뉴저지 뉴오버벡 공원

에서 '추석 맞이 대잔치'를 꾸몄다. 한인회는 한국 가요 콘서트, 국악 공연, 케이팝 댄스 경연 대회 등으로 한류 문화를 알리고 민속놀이도 펼쳤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한가위를 맞아 가족·동료와 함께 추석 행사를 즐겼다.

2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2층 휴게실에서는 한가위 맞이 웃놀이가 벌어졌다.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힘겹게 고향 땅을 밟은 동포들은 궁중에서 흠어진 옷이 '뽕'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환호성을 내며 손뼉을 쳤다.

경상북도 김천시 고향인 김모약(90) 할머니는 "어제 서투른 솜씨로나마 송편을 같이 빚었다"며 "올해는 뜻 깊은 추석을 맞았으니 명절 분위기를 내야지"라고 덧붙혔다. 1998년 남편과 육남매를 데리고 영주 귀국한 할머니는 추석 때 찾아온 아들딸 가족과 단란한 명절을 보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자리 잡은 사할린동포는 모두 88명이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였던 1939~1945년 러시아 등지로 강제 징용됐던 사할린 동포 1세대다. 복지회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추석 연휴 기간 모두 국내에 머물며 가족이나 동료와 명절을 함께 보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은 타향살이 시름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도 잊고 흥겹게 추석을 보내는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중국동포연합중앙회(총회장 김성학)가 한중 수교 23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제2회 중국동포 민속문화 축제'에는 4만여 명의 조선족

이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민속씨름·장기·널뛰기·제기차기·웃놀이와 떡메치기·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마당이 펼쳐진 가운데 올해부터 규모를 키운 제기차기에는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릴 정도로 주목을 끌었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차례상에서는 성묘도 못 가고 모국서 명절을 맞는 조선족들이 대거 몰려 합동으로 절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회는 70만 명을 넘어선 재한 조선족의 자체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석 전날을 '중국동포의 날'로 지정하고 민속축제를 열고 있다. **▶**



유럽과 미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유족도 남기지 못하고 별세한 황기환 애국지사의 무덤에 추석을 맞아 국화꽃 화분이 놓였다.



추석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추석맞이 웃놀이판을 벌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첫 고려인 선출직 하원의원 **박 빅토르**

## “한·우즈베크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



지난해 말 고려인으로는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선출직 하원의원에 당선된 고려인 3세 박 빅토르(57)는 우즈베키스탄 내 20만여 명, 전 세계 50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타슈켄트 주 고려인문화협회장이기도 한 그는 선거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우르타치르치크 지역에서 56%의 지지를 얻어 3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압승했다. 특히 유권자 15만 명 가운데 고려인은 소수에 불과해 그의 당선은 더 빛났다.

박 의원은 한국과의 우호 발전을 이루는 데 5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양국 우의 증진을 위한 첫 사업으로 ‘고려인·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는 조형물에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조화롭게 살자는 내용을 우즈베크어·러시아어·한국어로 새겨 넣을 계획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연해주 수찬 지역에서 한의사이면서 말 농장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37년 추수가 끝난 10월 중순 갑자기 러시아 군경이 들이닥쳐 강제로 화물열차에 태웠고, 영문도 모른 채 28일간 밤낮으로 달려 낮은 땅 타슈켄트에 버려졌다.

박 의원은 구소련 시절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중 입대했고 제대 후 결혼해 가정이 되자 복학을 포기하고 주물공장에 취직했다. 남다른 근면함으로 공장장이 된 그는 이후 국영 변압기 공장 부사장, 정부 산업부 전기 관련 부서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를 지켜보면서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건축회사인 ‘오카르다이스’(안전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차렸다. 1990년대 그의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대형 방직공장을 25개 건설하는 실적을 올리며 공장 건설 분야 선두 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2년 고려인문화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그는 이후 협회 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연 매출 5천만 달러의 케이 리 패션 대표 **이원주** 씨

## 필리핀에 학교 130여개 지어준 ‘봉사왕’

‘코리아에서 온 이 씨가 세운 패션업체’라는 뜻의 케이 리 패션(Kay Lee Fashion) 이원주(62) 대표. 그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의류 브랜드인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제이 크루(J. Crew) 등의 디자인을 본사로부터 받아 2천7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의류를 생산한다. 바나나 리퍼블릭은 전 세계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둔 갭(GAP)의 자회사이자 브랜드 명이고, 제이 크루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이다.

이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공장 3곳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으로 연간 5천만 달러어치의 의류를 생산해 납품한다. 필리핀 한인사회의 ‘말행’ 격인 이 대표는 2001



년부터 4년간 세계한인무역협회 필리핀지회장을 지냈고, 현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1976년 군 계대 후 부산의 국제그룹 산하 조광무역에 입사하면서 의류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80년 필리핀에 파견돼 1년간 근무하고 귀국했다가 1983년 미국 의류회사로 옮기면서 다시 필리핀 땅을 밟았다. 회사 매니저로 근무하며 겸직으로 여성 의류 하청 공장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1987년 자본금 25만 달러를 투입해 여성복 전문 의류회사인 '케이 리 패션'을 창업했다. 1989년부터 직접 주문을 받으면서 직원은 2천

500명까지 늘었고, 매출도 상승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건축위원장을 역임하며 봉사에 앞장서온 그는 법륜 스님이 이끄는 신행 단체 정토회가 주축이 돼 해외 봉사활동을 벌이는 JTS의 필리핀 대표를 맡아 민다나오 지역에 학교를 짓고 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46개 지역에 130여 개교를 신축했다. '정직'과 '신용'을 수레바퀴 삼아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워 살아간다는 신념을 실천한 그에게 한국 정부는 2011년 국민포장을 서훈했다.



시드니 한인 밀집지 스트라스필드 시장에 선출된 옥상두 씨

## 이민 1세대로는 최초의 카운슬 시장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 카운슬(Council)의 새 시장에 동포 옥상두(62) 씨가 선출됐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의회는 9월 29일 회의를 갖고 옥상두 의원을 1년 임기의 새 시장으로 뽑았다. 의회에는 7명의 의원이 있고 이 중에서 시장이 선출된다.

한인이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시장이 되기는 2008년 권기범 시장에 이어 7년 만이다. 권 전 시장이 부모님을 따라 호주에 온 이민 1.5세대라면, 옥 신임 시장은 유학생으로 온 이민 1세대다. 호주 내 이민 1세대가 카운슬의 시장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드니 서부 도심인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에는 약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한인은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스트라스필드역 앞에는 한인 상권이 형성돼 한인들의 왕래가 잦다.

옥 시장은 30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인들의 현안인 코리아 가든 사업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가든 사업은 시드니 올림픽 파크 인근 브레싱턴파크에 코리아 가든과 한인회관을 비롯해 회의장,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옥 시장은 또 “소수민족 출신들은 주 의회보다는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연방의회에도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옥 시장은 1985년 호주에 유학을 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에서 정치학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호주 한국유학생회장장과 시드니 한인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옥 시장은 2012년 9월 치러진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부시장을 지냈다. **[장]**



# 세계 각국에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 4년 새 2배로 확대 한류 여파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



미국 뉴욕의 데모크래시 프렙 차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저지 주에 소재한 노던밸리 데마리스트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 신입생들은 9월 초 개학에 맞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골라 배우고 있다. 지난 학년까지 이 학교 학생들은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5개 언어만 선택할 수 있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노던밸리 올드타운 고등학교도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에 추가했다. 뉴욕·뉴저지 주 18개 학교 네트워크인 데모크래시 프렙 공립학교도 한국어 필수 학교로 2개 학교를 추가 지정했다. 뉴욕 할렘의 신생학교인 데모크래시 프렙 인듀어런스 고등학교와 뉴욕 브롱스 소재 브롱스 프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특히 브롱스 프렙 학교는 지난해까지 필수과목이었던 스페인어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어를 채택했다.

이미 한국어가 정규 과목인 학교에서는 한국어반이 늘어나는 추



뉴욕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세이다. 2010년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던 뉴저지 주의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반을 9개로 늘렸다. 5년 전에 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많아졌다.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도 5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프랑스어를 정규 과목에서 제외했다.

한국계 학생도 이전과 달리 한국어 배우기를 기피하지 않고 있다.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의 황정숙 교사는 “이전에는 한국계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 학교에서 학업성적 10위 이내에 있는 한국인 학생은 모두 한국어를 선택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국어 배우기 붐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2010년에 21개국 540개였으나 지난해에는 26개국 1천111개 학교로 늘어났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새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5만 7천400여 명에서 9만 3천1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창**



# 재외국민, 2년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면 해외금융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강화해 2015년부터는 외국인이라도 2년간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재외동포 사업가들 사이에 대해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사업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발한 일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이 제도는 최초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지만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다. 2017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3일 '2015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 신고 기한에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신고 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 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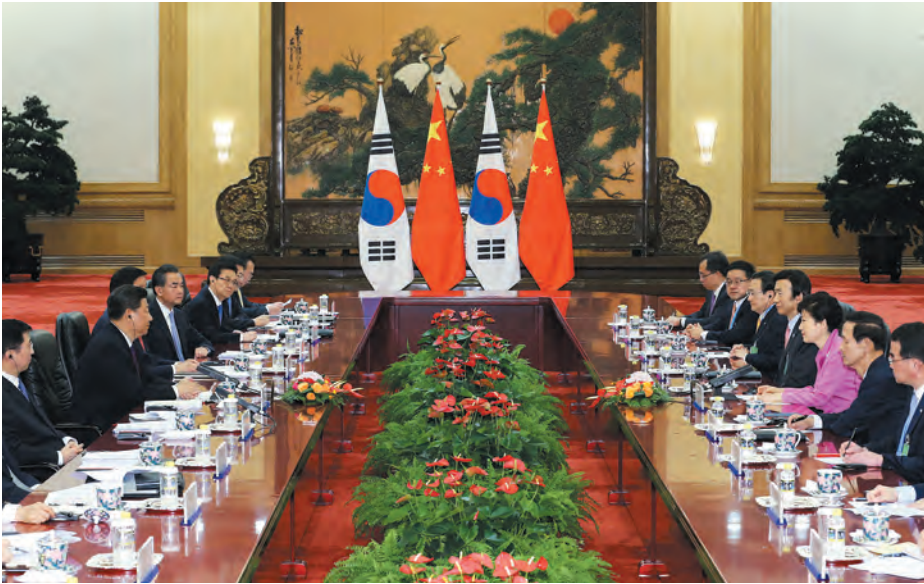
## Q&A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 별개다. 해외 계좌와 관련한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했다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조건에 해당하면 관련 계좌 정보를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 ‘한·중·일 정상회의’ 등 동북아 외교 주도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이 9월 3일 열병식서 박수를 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확대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9월 2일 중국을 방문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6번째 회담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아, 역내에서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일 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면담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양국 간 경제 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3일에는 대한민국 정상 가운데 최초로 텐안먼(天安門)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지켜봤다. 박 대통령이 오른 텐안먼 성루는 1954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장소였다. 중국의 혈맹으로 불리는 북한의 지도자

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텐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 및 변화된 북·중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역동적인 역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텐안먼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착석해 열병식을 지켜봤다. 중국의 전통적 혈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이었다. 반면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최룡해 당 비서는 텐안먼 성루 앞줄의 오른쪽 끝 편에 자리해 달라진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시 주석 왼편에는 중국 측 인사가, 오른편에는 외국 참석 정상 등이 자리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4일 상하이(上海)에서 한중 양국 정부 공동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며 한인애국단을 조직,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장소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청사를 재정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잇따라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했다. **장**

# 실버대학 사람들

김윤선 미국 | 재외등포의 창 통신원

**실**버는 아름답다. 확실히 그 말은 맞는 말  
인 성실하다. 매주 토요일, 한인교회는  
갑자기 술렁댄다. 아침부터 짹 짜인 학과  
일정으로 노인들의 수업이 시작되기 때  
문이다. 노인들이라고는 하나 그들이  
정성껏 단장한 모습들은 65세 이상  
이라고는 좀체 믿기지 않는다. 60대  
는 노인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오늘  
날, 70대는 청년이요, 80대는 장년  
이라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충  
분히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의 한인 교회는 종교 이  
전에 한인 사회다. 물론 타 종교와의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애  
초에 미국이 신교도들의 나라요,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  
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무료함  
은 이곳에서도 사회 문제다. 그런데  
한인교회에서 실버대학을 개강하고 나  
니 이는 노인들의 여유 시간 활용만이 아니라 그 동안 잊고 살았던  
자아 발견을 위한 계기가 된 셈이었다.

문학강좌 이룰테면 시 창작반이나 수필 창작반, 그리고 문장론반  
까지 수업 일정이 짜여 있고 서예 교실, 댄스 교실, 성경 교실, 컴퓨  
터 교실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살찌우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  
수들의 수준 또한 아마추어가 아니다. 각 부문에서 전문가들을 초  
빙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민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국에서의 삶에 그리움 하나를 더  
보탠 삶이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형제에 대한 그리움, 친구들에 대  
한 그리움으로 회한 하나를 더한 세월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래  
서 더 가난했고 그래서 더 순수한지 모를 일이다.

수업을 하는 동안 노인 학생들의 눈망울은 그렇게 반짝거릴 수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가슴속의 빈 공간, 그것이 비로소 이 시  
간들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메  
우려는 노력이 남보다 일찍 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남보다 앞서리



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농칠세라 귀 기울  
이는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글짓기를 배우면서 이미 많은 부  
분을 잊어버린 모국어와 일기 한  
번도 쓸 겨를이 없던 바쁜 세월들  
이 북받쳐 올라 닳두리로 옮겨 놓  
던 날 그들은 밤새 눈물로 지새웠  
을지 모른다.

댄스 수업 때 보면 마음은 앞  
서가는데 몸이 굳어있어 동작은  
영 서툴다. 거울에 비친 불룩한  
배가 눈에 거슬리지만 그들의 상  
상 속에 날렵했던 젊은 날의 모  
습이 살아 있다. 영화 '셀 위 댄  
스'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춤을 배  
우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  
지 않는다. 운동 겸 댄스가 삶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붓을 드는 일조차 어깨에  
힘이 드는 일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선을 그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정화된 모습을 느낀다.  
그리고 잃었던 정체성을 깨닫는다. 속일 수 없는 피의 흐름, 내 부모  
로부터 이어받은, 내 부모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리는 피의 흐름을  
느낀다.

영어가 언어 소통의 수단인 나라에 살면서도 늘 익숙지 못한 게  
영어다. 일터에서 바빠 배우긴 했어도 늘 목말랐다. 내가 사는 나라,  
늦었지만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 게 늘 꿈이었다. 그 외에도 미국 역  
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고령 복지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다. 배  
울 것은 많은데 마음이 바쁘다.

실버대학에서는 학예전도 연다. 고전 무용반 학생들은 고운 한복  
으로 춤사위를 펼쳤고 합창반은 고운 음색을 뽐냈다.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삶은 살아볼 만한 것임을 실버대학에서 배운  
다. 이국의 땅에서 자식들은 다 올바르게 성장했고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는 일이다. 삶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진  
정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늘 토요일을 기다린다. **창**

# 족보

천광일 중국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가작

우리 집에는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 천씨 가문의 족보 책 두 권이 있다.

한지를 명주실로 깔끔하게 매어놓은 책은 오랜 세월 속에 인젠 누르스름하게 색 바래고 보풀이 일기 시작하였건만 나는 꼭 마치 보배 단지 다루듯이 소중히 한다. 그런 나를 보고 아내와 두 딸은 그까짓 낡아 빠진 책에 별 신경을 쓴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그러건 말건 휴일에 집에서 여가가 있을 때면 가끔씩 족보를 꺼내서 펼쳐 보곤 하는데 고문(古文)으로 쓰인 옛 글들을 한 글자 한 구절씩 번역하고 주해(註解)를 달기도 한다. 한문 지식을 배우는 재미보다는 선인들이 후배에게 남겨놓은 역사를 한 구절씩 해석하다보면 저도 몰래 흘러간 세월의 감동에 푹 빠져들게 된다.

족보란 한 족속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밝혀놓은 책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책에 적힌 글줄들을 읽노라면 지난 세월 우리 백의민족 역사의 모퉁이마다 선인들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역력히 보인다.

어린 시절 반들반들한 노란 종이에 남모를 글자들이 가득 찍힌 족보를 보고 쓸모없는 책인 줄 알고 딱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책을 소중히 만지면서 이리 말했다.

“얘야, 우리는 원래 조선에 살았는데 일본 놈들의 압박과 계속된 가뭄에 너무도 살기 어려워 1920년대 초에 너의 조부 5형제가 가족을 이끌고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신화동에 터전을 잡고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차츰 살림이 늘고 여유가 생겨 1936년에 다섯 형제가 소 두 마

리를 판 돈으로 원래 살던 곳인 함경북도 명천군을 찾아가서 이 두 권의 족보를 만들어 온 거란다.”

“소 두 마리씩이나 판 돈을요?”

시골에서는 ‘지아비 없이는 살아도 소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 못살아도 밭갈이철에는 평소 먹기 어려운 찰떡을 치거나 콩을 삶아서 소에게 먹일 정도로 애지중지 하는 게 소였는데 그걸 두 마리나 팔아서 고작 책 두 권으로 바꿔왔단 말에 당시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세상에 부리 없는 나무는 없느니라. 족보 책은 비록 가벼워도 거기엔 우리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몇백 년을 내려온 역사와 혈맥 관계를 적어놓은 것이다. 이를 모르면 서로 가까이 있어도 남과 남인데 어떻게 대대손손 화목하게 잘살겠느냐. 인정 관계는 돈을 주고도 못 바꾼다”며 옛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우리 시조 천만리는 원래 중국 명나라 사람으로 무과 장원에 급제하여 군정관리직을 지냈는데 1592년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자 조선 이씨 왕조의 구원 요청으로 조병령양사겸총독장(調兵領糧使兼總督將)이라는 중임을 떠맡고 2만 명의 명나라 철기병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후 성, 광산, 동래 세 곳 전역에서 삼전 전승이라는 전과를 올리며 왜적을 소멸하는 큰 공을 세워 조선 국왕으로부터 화산군으로 봉해지고 총장공이란 위패를 내려 받았다. 그의 아들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라는 벼슬을 하사받은 뒤 조선에 남아 귀화하였는데 우리가 바로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민족 역사에 영광을 빛냈다는 이야기에 당시 어렵지만 너무도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해져 적혀 있는 족보책이 더없이 돋보이고 소중한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세운다’며 집집마다 낡은 책들을 소각하고 조직에 바치느라 야단일 때 족보도 불태워질 것





을 나의 결사 반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나는 아예 책 두 권을 비닐로 꼼꼼 싸서 누구도 모르게 헛간에 감추어 두었다가 몇 해 뒤 잠잠해지자 꺼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가문의 보물을 살려낸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수고천장(樹高千丈)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결국 낙엽이 되어 거름이 된다는 뜻으로 인생도 때가 되면 자연히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는데 그래서인지 나도 환갑을 넘기고 보니 그 뿌리를 찾고 싶은 생각이 더욱 짙어진다.

언젠가는 조상들의 삶의 옛터를 찾아 시조 영전에 술잔에 술을 붓고 인사를 올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족보에 적혀 있는 조상들의 원적지인 함경북도 명천군을 찾아가길 타산으로 여러 해째 이모저모 애써봤다. 두만강을 사이 두고 엮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서 쉬울 줄로 여겼는데 북한에 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컴퓨터를 익혀 인터넷으로 한국 천씨 종친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됐다. 한국에도 많은 후손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됐고 가문의 지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소식이 가슴이 한결 뿌듯했다. 더욱이 전북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에 시조 충장공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서원이 있으며 방촌동에 시조의 묘지까지 있다는 사실에 숙원을 풀 수 있다며 기뻐했다.

2012년 8월에 한국 방문 기회가 있어 나는 작은 딸을 데리고 서울로 간 김에 소원을 풀고 싶어 짐 속에 족보책을 챙겨 갖고 떠났다.

방한 중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종친회 사무실을 찾아가 천석기 사무국장에게 가져온 족보책을 보여주니 “중국에도 이런 족보가 있는가?”라고 놀라면서 중국에서 사는 천씨 가족이 이렇게 찾아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각기 족보책을 펼쳐놓고 남과 북의 족보책에

쓰인 내용을 대조하였는데 시조에 관한 서술과 앞부분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그 뒤 세대부터는 두 족보가 이어 내려온 기재가 달랐다. 천씨는 본이 하나라서 언제나 한 집안이라 했는데 족보마저도 서로 제 갈래대로 적었으니 큰 실망이고 유감이었다.

나는 천 국장에게 우리 시조가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왜적들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지만 얼마 후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군대가 조선에 와서 명나라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 죽이는 통에 추적을 피해 함북 명천의 깊은 산골에 피란해 외부와 연계를 끊고 살았다는데 어떻게 전북 남원에 묘지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물음에 그 분은 사실 남원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이름 모를 천 장군이라는 묘지가 있는 것을 시조의 무덤이라고 추측한 것이지 사실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족보에 적혀 있는 대로 금강산 정양사에 찾아가면 혹시 그 실마리를 풀 가능성도 있다며 왕래가 자유로운 조선족이니 찾아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리가 금강산에 가면 마치 자유롭게 행동하며 탐방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믿어주며 하시는 그 분의 부탁에 나는 그저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원의 시조 묘지 탐방을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수백 년 전 시조께서는 인심 좋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떠나기 아쉬워 이 고장에 뿌리를 내렸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화목하게 잘살아가라고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사람들은 저희들의 마당에 금을 그어 놓고 니 것 내 것 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싸우고 싶어하는지 통 이해가 안 간다.

족보를 보존하는 것은 종법을 이어가고 조상을 존경하며 인정을 가까이하고 후손에게 멀리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의 족보도 머지않은 장래에 남과 북의 혈액을 하나로 통합한 새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창**

## 재외동포 사진전 대상에 '121 코커스 만세'



재외동포재단이 10월 5일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부대 행사로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공원에서 서 '재외동포 사진전'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제3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위로하는 뜻을 담은 '121 코커스 만세'를 선정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 세계 26개국 105명의 동포가 모두 594점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130여 점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대상작인 '121 코커스 만세'는 재미동포 신재동(72) 씨가 출품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어린이의 모습을 따스한 분위기로 담았다.

우수상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세족식 풍경을 담은 뉴질랜드 동포 권영돈(63) 씨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차지했다.

이밖에 상모, 태권도, 광복절 행사 등을 소재로 한 사진 11점이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

재외동포재단은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동포 소장 사진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열었다.

## “도쿄 한류 상권 살리자” 日 신오쿠보에 무료 순회버스

한일 관계 악화와 '혐한(嫌韓) 시위'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일본 도쿄의 한류(韓流) 상권을 살리고자 무료 순회 버스가 도입됐다.

도쿄의 대표적인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신오쿠보(新大久保) 상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 '신주쿠(新宿)한국상인연합회'는 매주 금·토·일요일과 휴일에 일대를 도는 무료 버스 '신오쿠보 케이(K) 셔틀'을 운행하기로 했다.

K 셔틀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신주쿠역과 신오쿠보역 등 일대를 크게 2개 노선으로 나눠 하루 6차례씩 돌며 관광객, 주민, 상인을 실어나를 예정이다.

9월 16일 신오쿠보 한인 상가 밀집 건물인 'K플러스' 주차장에서 한국 상인, 유홍수 주일본 대한민국대사, 오공태 재일본대 한민족민단 단장,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모인 가운데 시승 행사가 열렸다.

오영석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장은 “K 셔틀의 'K'가 한국(Korea)의 'K'이기도 하지만 희망(일본어로 '기보<希望>'), 로마자 표기 시 kibou)의 K이기도 하다”며 K 셔틀이 한일 우호의 상징인 한류 상권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인천재능대, 카자흐스탄 재외동포에 최신 뷰티 교육

인천재능대학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청년 10명에게 최신의 한국 미용기술을



인천재능대학교가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작해 청년 10명에게 최신의 한국 미용기술을 교육한다.

교육한다.

대학은 10월 1일 캠퍼스에서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개소식을 열고 11월 27일까지 고려인 3세 청년들에게 최신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스킨케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청년은 용인 민속촌, 서울 경복궁 등을 방문하며 한국 전통문화도 체험한다.

인천재능대 뷰티케어과 학생들이 이들의 멘토가 돼 한국 생활을 돕는다.

재능대가 재능기부로 무상교육하고,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재외동포재단에서 부담한다.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이들은 이번 연수에서 최신 K-뷰티 기술을 익혀 자활 능력을 강화하고 한류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기우 재능대 총장은 “국내 대학을 대표해 우리의 선진 뷰티케어 기술과 문화를 전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술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로 첨단 기술도 익히지만 한국이 나의 뿌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

# 바른 말 고운 말

**어긋장을 놓다**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거나 어딘가 비딱하게 벗어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어긋장을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긋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 집의 광이나 부엌문은 질이 좋은 나무로 네 아귀를 딱 맞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잡목으로 대충 만들었는데, 질 나쁜 나무로 만든 문이 밖에 있다 보니 비바람과 햇빛에 쉽게 노출돼서 비틀어지거나 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틀림이나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에 대각선으로 나무를 붙이는데, 바로 이 나무가 ‘어긋장’입니다.

‘어긋장’이 대각선으로 붙여진 모양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어긋장을 놓다’입니다. 그래서 ‘어긋장을 놓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어그러지게 한다거나 바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훼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발사돈 / 발걸이** 한글 맞춤법에는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것은 그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삼 일 전이라는 뜻의 ‘엇그저께’라는 말을 예로 들어 보면, 원래 이 말은 ‘어제그저께’가 원말인데, 앞부분에 있는 ‘어제’에서 모음 ‘애’가 줄어서 남은 자음 ‘저’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어서 ‘엇그저께’가 된 것입니다. 그밖에 ‘모든 종류의’라는 뜻의 ‘온갖’도 ‘온가지’라는 말에서 모음 ‘이’가 줄어서 ‘온갖’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 대신 받침소리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돈’을 이르는 말로 ‘바깥 사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깥’이라는 말이 ‘밭’으로 줄어서 ‘발사돈’으로 됩니다.

씨름 기술 중 ‘발걸이’는 다리를 밖으로 대서 상대방의 오금을 걸거나, 당기거나, 미는 재주를 말하는데, 이 경우도 역시 ‘바깥’이 줄어서 ‘밭’이 된 것입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    |    |    |    |    |   |    |
|----|----|----|----|----|----|----|---|----|
|    | 1  |    | 2  |    |    |    | 3 |    |
| 4  |    |    |    |    |    | 5  |   |    |
|    |    |    |    | 6  |    |    |   |    |
| 7  |    | 8  |    | 9  |    | 10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
|    |    |    | 16 |    | 17 |    |   | 18 |
| 19 | 20 |    |    |    | 21 | 22 |   |    |
|    |    |    | 23 |    |    |    |   |    |

### ▶ 오른쪽 방향 열쇠

-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시호는 충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직접 만든 거북선을 이용해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워 삼도 수군통제사가 됐다.
- 제왕(帝王)의 첩
- 돈을 받고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의 상호 등을 지어 주는 곳
-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를 다스리는

- 교회 행정의 중앙 기관. 바티칸 시국에 있다.
- 이를 닦는 데 쓰는 약
  - 강가나 바닷가의 흰모래가 깔려 있는 곳
  - 설탕이나 옛 따위를 풀었다가 식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굳힌 것
  - 항공기를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도록 다루는 기능과 자격을 갖춘 사람
  - 소리 없이 빙글이 웃음, 또는 그런 웃음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 석탄을 캐내는 광산

### ▶ 아래쪽 방향 열쇠

- 방이나 술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 두 사람이 한 성부씩 말아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일
- 미리 정해 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
- 놀라거나 대답해 어찌할 바를 모름
- 주재국 영토 안의 자국민을 보호·감독하고, 주재국에 근무하는 자국의 영사 및 관리를 감독하는 최상급의 영사
-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곧고 깨끗한 관리
-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소나 말, 양 따위를 놓아기르

- 는 곳
-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또는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림
  - 터뜨리면 강한 빛을 내는 탄알이나 폭탄. 밤에 지상을 비추거나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데에 쓴다.
  -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
  - 관세청에 딸려 있는 기관의 하나.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 학교에서, 자연 관찰이나 역사 유적 따위의 견학을 겸해 야외로 갔다 오는 일
  - 죄인이나 피의자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 ▶ 9월호 정답

|   |   |   |   |   |   |
|---|---|---|---|---|---|
| 김 | 밥 | 면 | 유 | 관 | 순 |
| 칫 | 사 | 조 | 고 |   |   |
| 국 | 수 | 포 | 경 | 선 | 입 |
|   | 금 | 광 | 레 | 가 | 구 |
|   |   | 주 | 먹 | 신 | 랑 |
|   | 사 | 리 | 운 | 비 | 수 |
| 호 | 위 | 자 | 동 | 차 | 박 |
| 랑 |   | 만 | 용 |   | 머 |
| 이 | 민 | 심 | 증 | 인 | 리 |

장사꾼 따라 전국에 퍼진 밀양 대표 음식

# 흑염소 불고기와 돼지국밥



흑염소 불고기는 쫄깃하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하다. 후식으로 먹는 촌국수도 별미이다.



경남 밀양시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푹푹 어는 얼음골 계곡, 국난이 있을 때 맘을 홀린다. 는 무안면 표충비 등 관광 명소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영남 알프스 백마산 자락에 있는 평리마을에서는 논메기를 잡을 수 있고, 꽃새미마을에서는 하늘을 뒤덮은 새빨간 고추잡자리 잡기와 가재 잡기도 할 수 있다.

밀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 장터음식인 돼지국밥을 비롯해 흑염소 불고기, 잉어찜, 고동국, 산채비빔밥 등 군침을 돌게 하는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여행자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이유이다.



## 노린내 전혀 없는 흑염소 불고기

양고기의 노린내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흑염소 불고기를 선뜻 선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단장면 표충사 인근의 식당들에서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곳 흑염소 불고기에서는 그저 구수한 냄새와 감칠맛만 나기 때문이다.

이곳 흑염소 불고기는 식당에서 직접 자연 방목하거나 인근에서 사들인 육질이 가장 좋은 만 1년생 흑염소를 이용하는데, 손으로 일일이 포를 뜬 후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간장·설탕·마늘·참기름 등의 불고기 양념으로 잘 재워둔 고기로 요리를 한다.

불고기를 주문하면 흑염소 고기가 팽이버섯·양송이·양파·파·당근과 함께 나온다. 불고기는 석쇠나 잘 달궈진 불판을 이용한다. 흑염소 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잘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 먹으면 깔끔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침을 한가득 이게 한다.

밀반찬으로는 나오는 배추김치·깻잎·콩나물 무침·고추 장아찌와 재약산에서 채취한 각종 산나물을 함께 먹으면 개운한 뒷맛을 느낄 수 있다.

## 서민들의 영양 식단, 돼지국밥

밀양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돼지국밥도 유명하다. 특히 무안면의 돼지국밥이 유명인데, 옛날 이곳 5일장에 몰려들던 장사꾼들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의 배를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채워주는 특별한 푸짐한 음식이었다.

무안면 장터에 돼지국밥이 등장한 것은 60여 년 전. 한 할아버지가 소뼈를 오랫동안 고아 낸 맑은 육수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은 암돼지 고기를 올려 누린내를 없앤 국밥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밀양 돼지국밥은 특유의 깊은 맛과 푸짐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



밀양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은 부드러운 고기와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에 반한 장사꾼들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 유명해졌다.

표충비각 인근의 돼지국밥 식당들은 식육식당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당과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돼지국밥에 사용하는 질 좋은 고기를 바로 댈 수 있다.

돼지국밥을 주문하면 돼지고기와 파가 푸짐하게 담긴 뚝배기가 나온다. 국물에 밥을 말아 배를 채우던 장터 음식답게 찬은 잘 익은 배추김치와 깍두기, 풋고추와 깎 양파, 마늘 등으로 단출하다.

뚝배기에 소면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숟가락 한가득 밥과 고기, 파를 올려 입속에 넣으면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와 맑고 개운하면서도 구수한 국물 맛이 어우러진다. 여기에 잘 삭은 배추김치나 깍두기를 곁들이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참]**

Tip

### ▶ 영남루

진주 축석루, 평양의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의 하나인 영남루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65년 부사 김주가 신라시대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영남사의 부속 누각을 철거한 후, 진주 축석루의 제도를 취해 개칭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강물에 비친 영남루의 아름다운 야경은 최고의 경치로 손꼽히고 있다.



• 문의 : 밀양시 문화관광과 055-359-5646

### ▶ 밀양 여행 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사명대사 유적지 → 표충비  
→ 영남루 → 시립박물관  
→ 해산서원 → 얼음골

#### • 천안 시티 투어

밀양시청 문화관광과 055-359-5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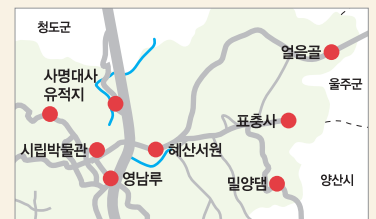
밀양시 홈페이지 (<http://tour.miryang.go.kr>)

• 대중교통 : KTX 열차(서울-밀양 2시간 20분 소요)

고속버스(서울-밀양 6시간 20분 소요)

• 식당 정보 : 청수정가든(흑염소불고기) 055-353-9559

동부식육식당(돼지국밥) 055-352-0023



# 한인 청년리더 육성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지도자 역량결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18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나다 연방 상원의원,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존 최 미국 뉴저지 에디슨 시장, 리아 서미 연방 내무부 차관보 등 30여 개국의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1천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조규형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며 “이들이 대회에 참가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 활성화,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립니다. 차세대대회는 분야별 포럼, 유명 인사 강연, 문화 체험 등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치러지는 연례행사로, 지금까지 연아 마틴 캐

대 리더들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며 “이들이 대회에 참가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 활성화,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청춘은 Move! 세계로 Move!

# 2015 K-MOVE

##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

2015. 10. 01 ~ 11. 20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당신의 소중한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 해외진출 종류 :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



K-Move는?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공모대상

-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 공모주제

- 해외진출(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의 수기 및 사진

| 공모분야 | 공모 주제  |
|------|--|
| 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의 긍정적 경험 및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 사례</li> <li>· 해외진출 동기, 도전경로 및 준비과정, 해외진출 성공담 및 나만의 해외 적응 노하우, 해외체류 중 인상적인 경험담 및 에피소드, 해외진출로 인한 스스로의 변화된 삶 또는 시각 등 자유롭게 활용</li> <li>· 해외진출에 대한 개인적 비전 및 K-Move에 대한 생각</li> <li>· K-Move 프로그램 참여 경험</li> <li>·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ove스쿨, K-Move멘토단, K-Move센터 이용, 해외취업알선서비스, 해외취업성공강령, 월드잡플러사사이트 이용, 정부해외인턴사업, 코트라 글로벌 마케팅 인턴, 코이카 프로그램</li> </ul> </li> </ul> |
| 사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경험자들의(본인에 한함)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담긴 해외진출 경험 사진</li> </ul>  |

### 접수방법 및 문의

- 수기 1인 1작품 제한 / 사진 1인 2작품 제한
- 이메일 접수 : 2015kmove@gmail.com
- 성공수기 공모전 사무국 02) 566-9190

### 작품규격

| 공모분야 | 작품 규격  |
|------|--|
| 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혹은 MS워드 활용 / A4용지 2~3장(2,000~3,000자) 내외</li> <li>· 수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등의 이미지는 별도파일로 제출</li> <li>· 파일명 : 예) 수기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li> <li>· 수기 파일 내 필수 기입사항 : 이름 / 연락처 / E-Mail (상단명기)</li> </ul>   |
| 사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카메라 또는 이의 동등이상 성능의 카메라 사진 2,200X1,500pixel 이상의 jpg 파일 + 800자 내외 수기(한글 혹은 MS워드 활용)</li> <li>·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하지 않은 원본 제출</li> <li>· 사진 파일명 : 예) 사진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li> <li>· 수기 파일명 : 예) 사진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_수기</li> <li>· 수기 파일 내 필수 기입사항 : 이름 / 연락처 / E-Mail (상단명기)</li> </ul> |

### 시상내역

- 총 36 점 / 총 상금 1,350 만원

| 수상내역 | 수상작수             | 시상내역          |               | 비고            |
|------|------------------|---------------|---------------|---------------|
|      |                  | 수기부문          | 사진부문          |               |
| 최우수상 | 2 점 (수기1/사진1)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
| 우수상  | 4 점 (수기2/사진2)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 장려상  | 10 점 (수기5/사진5)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
| 가작   | 20 점 (수기10/사진10)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

\*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상금 지급.

\* 수상작은 정책홍보를 위해 주최측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